

▶ 아이콘을 클릭하면 보고서 원문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2011.01.31

Morning Snapshot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 / 국내외 경제 및 업종 뉴스

리서치센터

기업코멘트

KT(030200) : 4Q 리뷰 : 스마트폰 효과는 어디에	최남곤
SK브로드밴드(033630) : 4Q 리뷰 : 알려진 호재보다 플러스 알파가 필요	최남곤
글로벌비스(086280) : 4Q Review : 호랑이는 호랑이를 낳는다	강성진
넥센타이어(002350) : 2010년 4Q Review	안상준
대한항공(003490) : 4Q Review : 비용증가 중 상당부분이 朝三暮四	강성진
삼성전자(005930) : 매출 150조원 시대의 개막, 절대 강자의 질주 시작!	신현준
플렉스컴(065270) : 스마트한 실적성장으로 저평가 부각	오경택
한진해운(117930) : 4Q Review : 잔 파도는 내려가고 큰 파도는 올라온다	강성진
현대모비스(012330) : 2010년 4Q Review	안상준
현대제철(004020) : Earnings Level - Up 본격 시동 !!!	박기현
현대차(005380) : 2010년 4Q Review	안상준

Global Market

MyAsset Guide (2011.01.31)	김후정
글로벌펀드 : 한국펀드, 나홀로 선전 중 : 국내펀드 : 금리인상 영향으로 단기자금시장 변동성 확대	백지애

Equity Market

[2월 주식시장 전망] : 2월의 투자 키워드는 인플레이와 계절효과	이재만
---------------------------------------	-----

Derivatives Market

KOSPI200지수 특별변경 발생 : 전기초자 Out, 영진약품 In	이중호
--	-----

Economic Market

미국 4분기 성장 가속화, 이집트 시위로 투심 위축	김지현
------------------------------	-----

U.S.

美 증시 하락 마감. 소비와 수출이 크게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집트 사태가 악재로 작용하며 다우지수는 9주만에 첫 주간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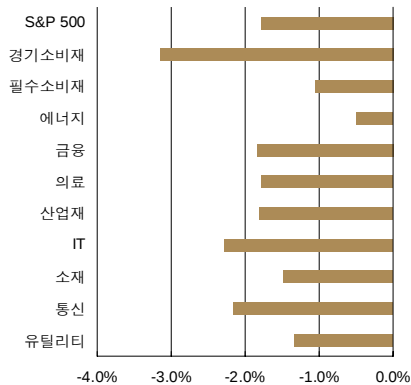
이집트 사업 비중 높은 에너지 업체 아파치 1.3% 하락. 포드는 4분기 순이익 급감 여파로 13.4% 하락. MS, 아마존닷컴 역시 월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 실적에 각각 3.9% 7.2% 하락

Asia

日 증시 하락 마감. 신용등급 강등 여파에 금융, 제조업 등 거의 모든 업종이 약세 보여. 미쓰비시 금융 2.7% 하락. 도요타, 혼다 각각 1.3%, 0.9% 하락

중 증시 상승 마감. 부동산세 시행 악재에도 자동차와 원자재주 강세 보이며 지수 상승 견인. 상하이자동차는 저평가 됐다든가 씨틱증권의 보고서에 3.9% 상승. 장시구리 1.8% 상승

S&P 500 섹터별 1일 등락률



Today's Chart

美 소비심리평가지수



Economic Indicators of this week

	이전	예상	확정
1/28 美 개인소비	2.4%	4.0%	4.4%
1/28 美 소비심리평가지수	72.7	73.1	74.2
1/31 美 개인소득	0.3%	0.4%	
1/31 美 개인소비지수	0.4%	0.5%	
1/31 美 PCE 근원 (전월대비)	0.1%	0.1%	
1/31 日 산업생산(전년대비)	5.8%	4.4%	
1/31 日 자동차생산(전년대비)	-6.7%		
1/31 日 건설수주(전년대비)	-5.3%	1.1%	
1/31 日 주택착공건수 (전년대비)	6.8%	4.6%	
1/31 韓 BSI - 제조업	92		
1/31 韓 제조업 산업생산 (전월대비)	1.4%	2.6%	
1/31 韓 경기총합선행지수 (전년대비)	2.6%		

Global Market	증가	1일	5일	1달
DOW	11823.70	-1.39	-0.41	+2.13
NASDAQ	2686.89	-2.48	-0.10	+1.28
S&P 500	1276.34	-1.79	-0.55	+1.49
VIX	20.04	+24.09	+8.50	+12.90
PHILA Semiconductor	438.61	-2.81	+1.61	+6.51
영국(FTSE100)	5881.37	-1.40	-0.25	-0.31
독일(DAX)	7102.80	-0.74	+0.57	+2.73
일본(NIKKEI225)	10360.34	-1.13	+0.84	+1.28
대만	9145.35	+0.47	+2.13	+1.93
홍콩 항셱	23617.02	-0.68	-1.09	+2.52
홍콩 H	12565.56	-0.66	-1.33	-1.00
상하이종합	2752.75	+0.13	+1.38	-1.97
인도	18395.97	-1.54	-3.42	-10.30
싱가폴	3229.69	+0.31	+1.42	+1.24
호주(ASX 200)	4872.51	-0.70	-0.40	+0.53
베트남	510.60	+1.58	-1.71	+5.35
태국	981.83	-0.49	-2.46	-4.93
브라질	66697.57	-1.99	-4.12	-3.76
러시아(RTS)	1885.53	-1.36	+0.04	+6.51
MSCI 선진국	1302.13	-1.44	-0.03	+1.72
MSCI 이머징	1126.29	-1.36	-0.91	-2.18

Commodities	종가	1일	5일	1달
WTI(NYMEX)	89.34	+4.32	+0.26	-2.23
두바이유(NYMEX)	92.58	+0.19	+0.19	+3.96
천연가스(NYMEX)	4.32	+0.16	-8.72	-1.86
금(NYMEX)	1,340.70	+1.69	-0.02	-5.66
구리(LME)	9,370.00	+0.57	-3.96	-0.64
아연(LME)	2,250.00	+0.22	-7.88	-5.40
니켈(LME)	26,130.00	+1.18	-0.27	+7.58
알루미늄(LME)	2,389.00	+0.29	-3.20	-2.41
밀(CBOT)	825.75	-2.42	+0.15	+3.97
옥수수(CBOT)	644.00	-1.04	-2.02	+2.38
대두(CBOT)	1,398.00	-0.11	-1.01	+0.30
CRB 상품지수	335.44	+1.22	+0.43	+0.79
NAND 16GB MLC	4.33	+0.46	-1.37	-10.54
DDR2 1G 800MHz	1.39	-0.71	+1.46	-1.42
DDR3 1G1333MHz	1.05	0.00	-1.87	-3.67
Baltic Dry Index	1,137.00	-4.13	-17.01	-35.87

FX Rate	종가	1일	5일	1달
원/달러	1,113.80	-0.60	-10.30	-21.00
원/100엔	1,344.80	-14.80	-3.00	-58.30
원/위안	169.29	-0.61	-0.53	-3.52
엔/달러	82.12	-0.01	-0.36	+0.94
달러/유로	1.36	-0.00	-0.00	+0.02
위안/달러	6.58	+0.00	-0.00	-0.01

* 환율변동은 원화가치 변동폭을 나타냄

Economy News

- ▶ 블룸버그, 피치 이집트 신용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머투>
- ▶ 이집트, 정정 불안으로 국제 10년물 수익률 사상 최고...지난 4월 이후 최고 상승폭<머투>
- ▶ 유로존, 1월 소매판매 55.8로 사상 두번째 최고치...프랑스, 독일 소비심리 개선 탓<머투>
- ▶ 중국, 베이징시 하반기부터 주택 재산상 부과할 듯...상하이와 충칭에 이어 세번째<매경>
- ▶ 美, 의회서 한미 FTA 가장 먼저 비준 기대...협상 마무리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밝혀<한경>
- ▶ 스페인, 실업률 13년만에 최고치인 20.33% 기록...국민들 실업을 최대 문제로 여겨<연합>
- ▶ IMF, 미국과 일본에 재정적자 감축 촉구...세계 개혁 통한 세입 증가가 중요<매경>
- ▶ 英, 경기 신뢰지수 20년만에 큰 폭 하락...최근 가파른 물가상승세가 주된 요인<연합>

Equity	1/28	1/27	1/26	1/25
KOSPI	2107.87	2115.01	2110.46	2086.67
수익률(%)	-0.34	+0.22	+1.14	+0.22
KOSDAQ	527.46	528.63	524.71	522.96
수익률(%)	-0.22	+0.75	+0.33	-0.78
거래대금(십억원)	10,168	9,389	8,131	9,622
시가총액(조원)	1,279.4	1,283.0	1,279.6	1,265.8

* 거래대금과 시가총액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합계

Futures	1/28	1/27	1/26	1/25
KOSPI200	278.45	279.20	278.81	275.18
수익률(%)	-0.27	+0.14	+1.32	+0.25
최근월물	278.80	279.40	278.90	276.30
시장배미시스	0.35	0.20	0.09	1.12
미결제약정수량	104,331	106,977	107,907	105,082
차근월물	280.30	281.30	280.45	277.30
차근PR순매수(십억원)	-62.1	-185.4	-31.5	64.0
비차근PR순매수(십억원)	-58.3	-129.5	-56.9	-234.2
매수차익잔고(십억원)		8,261.2	8,360.6	8,341.1

매매동향

현물순매수(억원)	-1,379	-476	2,686	-832
선물순매수(계약)	77	-167	180	-90
선물순적순매수(계약)	-3,361	4,692	-4,562	3,231

* 현물순매수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합계

중시주변자금(십억원)	1/27	1/26	1/25	1/24
고객예탁금	15,507	15,404	15,368	15,786
신용융자(유가증권)	4,729	4,788	4,787	4,793
신용융자(코스닥)	1,560	1,564	1,558	1,563
미수금(합계)	188	206	235	186
국내 주식형	-	61,187	61,217	61,223
(증감)	-	-30.0	-6.0	+278.0
해외 주식형	-	39,186	39,154	39,201
(증감)	-	+32.0	-47.0	-35.0
주식 혼합형	-	12,046	12,111	12,128
환율금리 혼합형	-	20,587	20,621	20,524
환율금리형	-	51,441	51,585	51,558
MMF	-	67,085	69,829	72,874

Fixed Income	증가	1일	5일	1달
국고채3년	3.88	+2	+7	+38
통안채1년	3.51	+2	+6	+38
회사채3년(AA-)	4.67	+1	+4	+35
회사채3년(BBB-)	10.67	+0	+3	+36
CD(3개월)	3.03	+1	+3	+23
CP(3개월)	3.18	0	+4	+17
국내신용스프레드(bp)	679	-2	-4	-2
미국국채(10년)	3.33	-6	-8	-1
일본국채(10년)	1.22	-2	+1	+10
TED Spread(bp)	19	+1	0	-7

* 국내신용스프레드 = 회사채 3년(BBB-) - 국고채 3년

- ▶ 기획재정부, 전기요금 인상 로드맵 작성 착수...일각에선 하반기부터 전기요금 오를 것이라고 전망<머투>
- ▶ 국토해양부, 미분양 41개 월만에 8만채대로 감소...분양가 인하 및 세제지원이 주된 요인<한경>
- ▶ 연초부터 국가 재정 위장...구제역 피해 보상금과 물가 급등 차단하기 위한 관세 인하가 주 요인<한경>
- ▶ 경제장관·경제5단체장 내달 8일 오찬 회동...일자리 창출, 투자확대 등이 논의될 것<연한>
- ▶ 중견 건설사들 "올해도 주택 공급물량 줄이겠다"...장기화된 주택침체로 포트폴리오 재설계<이데>
- ▶李大통령, 잘못된 노사 문화 생산성 떨어뜨려...잘한 공공기관 CEO는 계속 연임해야 할 것<머투>
- ▶ 유장관, 구제역 사태 수습 후 사태 의사 밝혀...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공직자 본분 지킬 것<한국>
- ▶ 에프앤가이드, 1조 클럽 첫 20개 돌파...경쟁력 업그레이드와 환율효과 견치 결과<한경>

소재/중화학

- ▶ **POSCO, 카메룬 철광산 개발 나선다<한경>**
POSCO, 아프리카 자원개발 사업 본격화...카메룬 음발람 철광산 공동개발 사업 합의
- ▶ **현대제철, '서프라이즈'...참사 이래 최고 외형성장<매경>**
현대제철, 지난 4Q 영업이익 3523억원으로 전년동기비 87% 증가...연간 영업이익 전량치 5.7% 웃돌아
- ▶ **제일모직, 패스트패션 자회사 만든다<매경>**
제일모직, 3년 넘게 준비해온 아심작 패스트패션(SPA) 브랜드 서서히 윤곽...내년 상반기 론칭 확정
- ▶ **삼성엔지니어링, 연매출 5조시대 열어<매경>**
삼성엔지, 지난 4Q 매출 1조7972억원/영업익 1200억원/순익 910억원...연간 매출은 5조 2994억원
- ▶ **대우건설, 2억400만불 리비아 병행공사 수주<이데>**
대우건설, 2억400만불 규모의 리비아 최초 호텔급 민간 종합건설 건설공사 수주...2013년 10월 완공 예정

- ▶ **현대·기아차 글로벌 점유율 8% 첫 돌파<이데>**
현대차, 점유율 2년간 5.2% `제자리 걸음`...기아차 점유율 전년도 2.6%서 2.9%로 `경증`
- ▶ **한국타이어, 지난해 글로벌 영업익 5858억<이데>**
한국타이어, 지난해 글로벌 매출 6조603억으로 전년비 11.5% 증가...영업이익은 전년비 6.6% 증가
- ▶ **쌍용차 변경회생안 통과...부활 실효란<매경>**
쌍용차, 대다수 주주와 채권자들이 쌍용차가 마힌드라에 인수되길 희망...변경회생계획안 가결
- ▶ **글로벌비스, 자동차 해운사업 확대<매경>**
글로벌비스, 대우버스와 해상 운송 계약을 체결하고 첫 수출 물량을 선적...계약기간은 3년
- ▶ **S&T대우, S&T모터스 자회사로 편입<아경>**
S&T대우, 지주회사인 S&T홀딩스가 보유 중인 S&T모터스의 지분(31.52%)을 전량 인수

내수/소비재

- ▶ 롯데슈퍼 '안심쌀' 5만톤 호주에 수출<이데>
롯데슈퍼, 자체 개발하고 생산한 '안심쌀' 5만톤을 호주로 수출...미국, 스페인, 몽골 등도 수출 예정
- ▶ CJ오쇼핑, 작년 영업이익 1208억..전년비 18%↑<머투>
CJ오쇼핑, 지난해 매출액 7111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0.4% 증가...순이익 929억 원으로 18.2% 증가
- ▶ 제일모직 패스트패션 브랜드 만든다<매경>
제일모직, 내년 상반기 신규브랜드 론칭 예정...별도 자회사 체제로 운영
- ▶ 다음, 기업신용등급 'A-'로 한단계 상향<이데>
한기평, 다음의 기업신용등급을 'BBB+(안정적)'에서 'A-(안정적)'로 상향조정
- ▶ 동아제약, 작년 매출 8468억..'박카스 고마워'<이데>
동아제약, 지난해 영업이익 985억으로 7.2% 증가...박카스 10.2% 성장

- ▶ **휴대폰 번호이동 다시 '과열' <전자>**
KTOA, 1월 번호이동 건수는 총 78만3894건으로 한 달 만에 17% 늘어나
- ▶ **KT, 11개국 무제한 데이터 로밍 <한경>**
KT, 2월 한 달간 무제한 3G 데이터 로밍을 이용할 수 있는 아시아 지역 국가를 2개국에서 11개국으로 확대
- ▶ **스마트폰, 이동사 '명암' 갈랐다<전자>**
아이폰과 갤럭시S를 앞세운 KT와 SK텔레콤의 작년도 매출과 순이익은 무선 사업부문의 견인으로 늘어나
- ▶ **중국, 내년 하반기 TD-LTE 상용 서비스<전자>**
중국이 독자적인 4G 이동통신 기술로 개발한 시분할(TD)-로밍에별루션(LTE) 서비스를 내년 하반기 상용화
- ▶ **"북미 게임시장 성장, 부분 유료화가 기폭제" <전자>**
지난해 북미와 유럽의 온라인게임 시장이 크게 성장...부분 유료화 방식이 새로운 사용자를 창출

금용

- ▶ **우리금융, 한국토지신탁 인수 추진<이데>**
우리금융, 비은행사업 강화 목적으로 한국토지신탁 인수 추진...지분50% 인수하려면 시가로 1100억원 필요
- ▶ **신한금융회장 단독후보 내달 14일 결정<매경>**
신한금융, 내달 14일 차기회장 단독후보 선정...최종후보 선정되면 3월 추종 거친 후 회장에 취임
- ▶ **하나금융, 외환銀 인수 재무적투자자 확정<머투>**
하나금융, 외환銀 인수 위한 재무적투자자 10여곳 잠정 확정...외국계 연기금과 펀드로 모두 10곳 가량
- ▶ **민유성 회장 "산은 민영화, 매각보다 IPO"<머투>**
민유성 산은지주회장, "산업은행 민영화방식은 매각보다는 상장이 유리"... 우리금융 민영화 후 밀그림
- ▶ **수주리할때 견적본 뒤 판단...새 세보협 내달 실시<매경>**
새 자동차보험제도, 2월 중순 이후 순차적 시행...사고 시 자기부담 확 늘어...손해액 선박하는 점률제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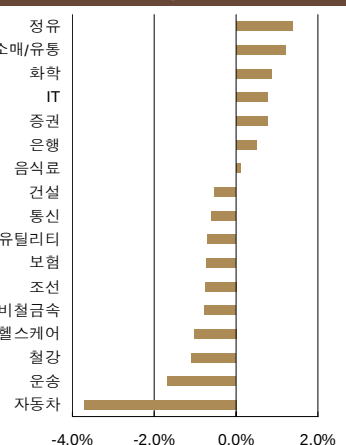
IT

- ▶ **D램 현물가격 이틀 연속 10% 안팎 상승<아이>**
D램 현물가격이 지난 27일부터 이틀 연속 10% 안팎으로 상승하면서 관심 높아져
- ▶ **삼성전자, 소니 등 6사와 '3D연맹' 협공<아이>**
LG가 도시바 비지오 필립스 등과 연대, 편광식 공세 포문을 열자 삼성이 소니, 샤프, 하이얼 등과 손잡고 협공
- ▶ **ZTE, 애플 제쳐<ZDNET>**
ZTE, 지난해 4분기에 공급물량을 쏟아낸 애플을 430만대 차로 여유있게 따돌리고 세계 4위에 올라
- ▶ **삼성폰 글로벌시장 점유율 첫 20% 돌파<한국>**
SA, 삼성전자의 지난해 연간 시장점유율은 20.6%...휴대전화 판매량은 전년보다 23%나 증가한 2억8천만대
- ▶ **IDC "작년 4Q 세계 휴대폰시장 18%성장"<한경>**
IDC, 2009년 연간 출하량은 13억9000만대를 기록, 2010년 출하량인 11억7000만대 대비해 18.5% 성장

Equities	증가	1일	5일
POSCO	462,000	-1.28	-2.53
NIPPON STEEL(JPY)	285	-2.06	+0.35
U.S. STEEL	55.8	-4.26	+2.50
현대중공업	498,000	-0.60	+4.51
MITSUBISHI(JPY)	335	-0.59	+4.04
한국전력	28,700	-0.35	+1.06
HUANENG(HKD)	4.3	-0.46	+1.40
대한항공	76,000	-2.56	-2.69
SINGAPORE AIR(SGD)	15.0	-0.66	-0.27
SK에너지	199,000	+0.25	+4.46
EXXON MOBIL	79.0	-1.11	+0.51
현대차	188,000	-4.08	+0.27
VOLKSWAGEN(EUR)	112.1	-0.27	+1.91
TOYOTA(JPY)	3,390	-1.45	-0.73
NHN	203,000	-0.49	-3.33
GOOGLE	601.0	-2.56	-1.65
신세계	576,000	+1.59	+0.70
WAL-MART	56.7	-1.51	+1.16
SK텔레콤	166,500	-0.60	-0.89
CHINA MOBILE(HKD)	77.3	+0.32	+0.26
KB금융지주	58,000	+0.35	+1.75
JPMORGAN	44.5	-1.24	-1.07
BOA	13.6	-0.51	-2.30
CITI	4.7	-2.28	-2.88
삼성증권	91,000	+2.82	+3.29
GOLDMAN SACHS	161.8	-1.38	-2.72
MORGAN STANLEY	29.0	-2.71	-2.39
삼성전자	1,010,000	+1.61	+4.02
APPLE	336.1	-2.07	-0.40
INTEL	21.5	-1.33	+1.04
LG전자	118,500	-1.66	-3.66
NOKIA	10.6	+0.09	-3.12
RIM	60.2	-2.95	-4.05
LG디스플레이	38,850	-2.63	+4.16
AUO(TWD)	29.0	+0.17	+1.22
CMI(TWD)	36.8	+0.55	+5.15

ADR / GDR	총가	1일	5일
신한금용지주(ADR)	89.1	-0.13	-0.82
Kd금용지주(ADR)	50.8	-2.25	-1.05
삼성전자(GDR)	305.6	+1.68	+4.57
LG디스플레이 (ADR)	16.7	-4.68	-2.68
KT(ADR)	19.9	-0.20	+0.66
SK텔레콤(ADR)	17.3	-1.20	-1.14
POSCO(ADR)	100.5	-3.79	-4.54
현대차(GDR)	84.5	-3.90	+1.00
한국전력(ADR)	12.4	-3.72	-3.04
KT&G(GDR)	26.9	-0.81	-0.76

유가증권시장 섹터별 1일 등락률



기관 주요 매매 종목

(단위: 억원)

순매도			순매수		
	종목명	금액		종목명	금액
1	현대차	1,087.9	1	하이닉스	419.4
2	현대모비스	975.9	2	삼성전자	330.6
3	삼성물산	668.0	3	삼성전기	281.0
4	삼성SDI	435.8	4	제일모직	230.1
5	기아차	410.5	5	신한지주	206.6
6	우리금융	329.5	6	하나금융지주	192.6
7	LG전자	256.1	7	삼성증권	185.6
8	LG	119.5	8	현대건설	175.1
9	KT	105.0	9	메디디어	166.2
10	에스소프트	87.6	10	삼성에지니어플	164.8

외국인 주요 매매 종목

(단위: 억원)

순매도			순매수		
	종목명	금액		종목명	금액
1	현대모비스	850.8	1	하이닉스	1,199.9
2	기아차	359.5	2	삼성전자	313.1
3	POSCO	320.9	3	삼성물산	211.6
4	삼성SDI	317.6	4	SK이노베이션	188.9
5	현대차	308.4	5	롯데쇼핑	121.4
6	하나금융지주	268.3	6	LG전자	86.9
7	KB금융	251.6	7	삼성엔지니어링	77.8
8	GS건설	187.3	8	LG상사	76.4
9	대우조선해양	159.1	9	현대홈쇼핑	76.3
10	에스소프트	129.0	10	한국전력	75.3

기업코멘트

KT(030200) : 4Q 리뷰 : 스마트폰 효과는 어디에

[원문보기](#)

최남곤 3770-3549 telecom@myasset.com

투자의견 Buy(M) / 목표주가 60,000원(M) / EPS 4,488원

- 4분기 실적 포인트
- 스마트폰 가입자 273만명 기록. 전체 가입자의 17%. 매출액 5조 1,914억원 기록 (- 0.8% QoQ, +9.3% YoY). 컨센서스 5조 958억원.
- 영업이익 3,047억원 기록 (- 48.7% QoQ, 흑자전환 YoY) 컨센서스 3,902억원
- 특징 : 이동전화 수익은 기대보다 부진(+2% YoY). 스마트폰 효과 부재 / 영업이익은 컨센서스 대비 부진. 이유는 감가상각비 & 수선비 등 계절적 영향. 그리고 초당과금제 & 접속료 & 시내전화 환급금 등이 영향 미친 것으로 판단됨 / 긍정적인 포인트는 마케팅비용 감소 & 유선전화 매출 감소 둔화
- 2010년 영업이익 12.8% 성장에 이어 2011년에도 10% 이상의 이익 성장 전망
- 매출액 20.5조원 / CAPEX 3.2조원 / 스마트폰 가입자 650만명 제시
- 스마트폰 관련 매출 증가 & 마케팅비용 증가 둔화 등에 힘입어, 연간 영업이익 증가율은 10% 이상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투자 의견 & Valuation
- PER 8.0배로 Global Peer Group 대비 36% 저평가. 역사적 저점 수준. 최근에는 SKT 대비 취약한 무선 네트워크 경쟁력에 대한 우려 제기되면서, 투자 심리 급랭한 상태임. 최근 2개월 간 기관 매도 규모 3,000억원 육박. 우려(통신업종의 규제 위험 / 트래픽 급증)는 대부분 반영된 것으로 판단됨
- 동사 주가의 본격적인 분기점은 상반기 중으로 모든 이동사가 QoS 컨트롤에 직면하는 시점이 될 것으로 판단됨. 이를 계기로 한국 통신사는 무제한 데이터 정액제를 재검토 하게 될 것이며, 또한 KT의 트래픽 분산 정책이 다시 조명 받을 것으로 판단됨. SKT 대비 아웃퍼폼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

기업코멘트

SK브로드밴드(033630) : 4Q 리뷰 : 알려진 화재보다 플러스 알파가 필요

[원문보기](#)

최남곤 3770-3549 telecom@myasset.com

투자의견 Hold(M) / **목표주가** 6,000원(M) / **EPS** -205원(하향)

- 4분기 실적 포인트 : 사업 구조 개편으로 순이익 턴어라운드 달성
- 매출액 5,867억원 기록 (+12.0% QoQ, +11.6% YoY). 컨센서스 5,418억원
- 영업이익 196억원 기록 (+269.8% QoQ, 흑자전환 YoY) 컨센서스 263억원
- 특징 : 통신업종 내 최고의 성장률(+11.6% YoY) 기록 / 수익성이 높은 기업 사업 위주로 사업 재편 가속화. 4분기 기업 사업 매출 비중은 25.9% /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400만명 달성 위해, 4분기에는 마케팅 활동 적극적으로 전개. 마케팅비용은 전분기 대비 약 47% 증가 / 2008년 4분기 이후 첫 순이익 턴어라운드 달성
- 2011년 가이드선 : 2010년의 계승
- 매출 성장률 11% 이상 / CAPEX 4,000억원 / 연간 순이익 턴어라운드 달성
- 기업 사업 구조로 재편 지속. SK텔레콤 리테일 지원 등에 힘입어, 순이익 800억원 이상 기록 전망
- 투자 의견 & Valuation : 주가 도약을 위해서는 플러스 알파가 필요
- 대표주의 부진으로 동사에 대한 관심 저하 이어지고 있음
- 상대적으로 높은 동사의 주가와 Valuation이 상위 단계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① SK텔레콤의 미디어 전략 재편에 따른 SK미디어 처리, ② SK텔레콤과의 좀 더 가시적인 합병 가능성 확보, ③ SK텔레콤으로부터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재판매 비중의 확대)에 따른 실적 추가 개선 등이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기업코멘트

글로비스(086280) : 4Q Review : 호랑이는 호랑이를 낳는다

[원문보기](#)

강성진 3770 - 3592 hiool@myasset.com

투자의견 Buy(M) / 목표주가 190,000원(M) / EPS 7,287원

- **활발했던 현대차그룹의 자동차 생산활동 ... 올 겨울도 바빴던 글로비스**
- 글로비스의 2010년 4Q 매출액은 1.6조원(YoY +58.7%, QoQ +7.4%), 영업이익은 641억원(YoY +94.4%, QoQ +4.5%)을 기록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당사 전망치 및 컨센서스에 부합되는 수준이었다. 4Q 영업이익 641억원은 3Q에 세웠던 사상최대 영업이익 기록을 한번 더 넘어선 것이다.
- 글로비스의 호실적은 예상 가능한 것이었다. 글로비스의 매출은 현대차그룹의 자동차 생산 판매 활동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난 4Q 현대차그룹의 국내자동차 생산은 QoQ 18.2% 늘었고, 해외생산도 12.3% 늘었다. 국내생산 자동차의 수출량도 QoQ 14.4% 증가했다.
- 세부부문중에서는 해외물류부문의 성장이 매출증가를 이끈 반면, CKD부문의 성장은 다소 둔화되었다. 해외물류매출은 현대차그룹의 자동차 수출대수가 증가에 힘입어 QoQ 12.2% 증가했다. 반면 CKD매출은 해외공장의 자동차 생산(글로비스가 CKD매출을 발생하는 공장만 합산 시)이 12월에 휴무관계로 다소 줄어들면서 QoQ 2.9% 증가하는데 그쳤다.
- **매출확대에 힘입어 2011년 1Q도 사상 최대 영업이익 전망**
- 글로비스의 사상 최대 실적 랠리는 이어질 전망이다. 2011년 1Q 예상 매출액은 1.8조원(YoY +42.5%, QoQ +12.7%), 영업이익은 743억원(YoY +44.6%, QoQ +15.8%)이다. 1Q 실적을 낙관하는 것은 1) 지난해 12월 가동에 들어간 현대차 러시아공장 및 다른 해외 공장들의 가동율이 높아짐에 따라 CKD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2) PCC부문에서 현대자동차그룹의 물량을 수송하는 비율이 전년도 30%에서 올해는 35%로 증가할 전망이다기 때문이다.
- **투자의견 BUY 목표주가 190,000원 유지**

기업코멘트

빅센타이어(002350) : 2010년 4Q Review

[원문보기](#)

안상준 (02)3770-3578 sangjun.ahn@myasset.com

투자의견 Buy(M) / 목표주가 14,000원(M) / EPS 800원(하향)

- **4Q 실적 Review: 일회성 비용 제외 시 영업이익률 10.8%로 양호**
- 동사의 2010년 4분기 잠정 실적은 매출액 2,890원(YoY +20.2%, QoQ +3.7%), 영업이익 184억원(YoY -28.2%, QoQ -38.5%), 순이익 100억원(YoY -51.5%, QoQ -58.2%)을 각각 기록. 매출액은 전망치를 소폭 하회했지만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당사 전망치(영업이익 294억원, 순이익 260억원)와 컨센서스(영업이익 281억원, 순이익 271억원)를 큰 폭으로 하회함
- 이 같은 실적은 128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인센티브 지급에 기인함. 이를 제외할 경우 4분기 영업이익률은 10.8% 수준으로 당사 전망치에 부합하는 수준임. 하지만 중국 법인의 경우 원재료 가격 상승 부담으로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전분기 대비 적자 전환해 실적 악화에 일조하고 있음.
- **2011년 1분기 전망: 실적 개선 당분간 쉽지 않아**
- 업황(수요)에는 문제가 없지만 원재료 가격 강세가 지속되고 있어 동사의 실적 전망을 어렵게 하고 있음. 지난해 11월까지만 하더라도 천연고무 가격만 걱정했지만 이제는 합성고무, 유가 등의 가격 강세까지 가세하고 있어 실적 개선은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판단임.
- 특히 1/27일 현재 톤당 5,500달러를 상회하고 있는 천연고무가격은 3월까지 진행되는 윈터링시즌(천연고무 채취비수기) 영향으로 최소 현 가격 수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동사의 실적 턴어라운드 시기가 늦춰지고 있다는 판단임. 동사의 1분기 예상 실적은 매출액 3,060억원(YoY +22.4%), 영업이익 250억원(YoY -22.8%), 순이익 190억원(YoY -24.4%)으로 각각 전망.
- **투자의견 Buy와 TP 14,000원 유지**
- 최근 주가 급등과 실적 개선 지연 등으로 인해 추가적인 주가 상승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동사의 장기적인 성장성을 감안해 투자의견 Buy와 TP 14,000원을 유지함

기업코멘트

대한항공(003490) : 4Q Review : 비용증가 중 상당부분이 朝三暮四

[원문보기](#)

강성진 3770-3592 hiool@myasset.com

투자의견 Buy(M) / **목표주가** 91,000원(M) / **EPS** 6,508원

- 실적 부진은 비용 당겨오기의 결과 ... 조삼모사에 기빠할 일도 아쉬워할 일도 없다
- 대한항공의 2010년 4Q 매출액은 2.9조원(YoY +12.4%, QoQ - 7.3%), 영업이익은 1,888억원(YoY +22.6%, QoQ - 47.3%)을 기록했다. 매출액은 당사 전망치 및 컨센서스(2.9조원)에 부합되었지만 영업이익은 당사 전망치 (2,550억원)과 컨센서스(2,355억원)에 각각 26%, 20% 미달했다.
- 예상보다 실적이 저조했던 원인은 예상보다 많이 발생했던 비용에 있다. 예상보다 많은 비용이 지출된 것은 1) 약 400억원 규모의 성과급 일시 반영, 2) 평소보다 벌어진 제트유가격과 원유가격의 스프레드, 3) 정비비의 증가 등 때문이다. 그 중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2010년 경영성과에 대한 성과급 지출이 2010년 4Q에 일시 반영되었던 부분으로 보이는데, 이는 2011년 비용에 가산될 수 있었던 것이 2010년에 반영된 것이므로, 대한항공에 대한 투자판단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 2011년 1분기 다시 사상 최대 실적 도전 할 것 ... 여객부문 호황에 기대
- 2011년 1Q 대한항공의 실적은 다시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예상 매출액은 2.8조원 (YoY +8.5%, QoQ - 2.7%), 예상 영업이익은 2,788억원(YoY +26.6%, QoQ +47.6%)이다 이는, 1) 1분기 여객부문의 L/F가 80%수준에 육박하면서 국제여객 매출이 YoY 14.1%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2) 원유가격의 상승속도가 소폭 둔화되면서 제트유 단가 도 다소 안정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상반기 초호황을 누렸던 화물부문은 전년대비 위축된 모습을 보일 것이라는 판단이지만 여객부문의 호황이 이를 상쇄하고 남을 전망이다.
- 투자의견 BUY 목표주가 91,000원 유지

기업코멘트

삼성전자(005930) : 매출 150조원 시대의 개막, 절대 강자의 질주 시작!

[원문보기](#)

신현준 (02)3770-3562 hjshin@myasset.com

투자의견 Buy(M) / 목표주가 1,400,000원(U) / EPS 75,612원

- [4Q10 실적 Review] 매출액 41.87조원(QoQ 4%), 영업이익 3.01조원(QoQ -38%)
- 2010년 매출액 154조 6,303억원(YoY 13%), 영업이익 17조 2,966억원(YoY 58%)
- 연간 기준 사상 최대의 실적 기록
- 4분기 메모리가격 급락으로 반도체 부문 실적 감소가 분기 실적 감소의 가장 큰원인
- 생활가전 사업의 수익 악화로 디지털미디어 부문 흑자전환에 실패
- 휴대폰 판매량이 전분기 대비 13% 증가하고, 스마트폰 판매비중도 증가(QoQ 3%p)하며 통신 부문의 실적 호조
- 메모리, 휴대폰 쌍두마차가 이끄는 2011년
- 2010년 하반기 DRAM가격의 급락으로 제조 업체들의 2011년 Capex 투자는 매우 보수적 전망
- 그 영향으로 올해 DRAM의 공급 증가는 상당히 제한적
- 이러한 시장 상황에서는 우월한 시장지배력을 보유한 동사의 실적은 경쟁사 대비 독보적일 것으로 전망
- 스마트폰 시장의 지속 성장 및 동사의 제품경쟁력 강화로 휴대폰 부문의 실적은 지속적 확대
- 상저하고의 계절성 회복에 따라 하반기 LCD 패널과 TV수요가 개선 전망
- 투자의견 Buy 유지, 목표주가 140만원 상향 조정
- Valuation 에 적용된 역사적 배수를 과거 10년 평균에서 4년 평균으로 조정하며(EV/EBITDA 배수 5.9 → 7.2) 이에 따라 목표주가를 140만원으로 상향 조정
- 메모리/휴대폰/LCD/D-TV의 독보적 시장지위가 유지되고 있으며, OLED, 태양전지 등 신규 사업의 성과가 가시화 되는 성장성까지 고려한다면 추가적인 주가 상승 모멘텀은 충분하다고 판단

기업코멘트

플렉스컴(065270) : 스마트한 실적성장으로 저평가 부각

[원문보기](#)

오경택 3770-3583 ktch@myasset.com

투자의견 Not Rated

- **FPCB 적용 확대 수혜**
- 동사는 08년 12월 비상장사였던 FPCB(Flexible Printed Circuit Board) 전문업체인 플렉스컴을 흡수합병하면서 본격적으로 실적성장을 나타냄. 또한, 08년 삼성전자 1차 Vendor 등록 이후, LCD/LED TV를 비롯하여 갤럭시S, 갤럭시탭 등으로 적용이 확대되면서 실적성장이 지속되고 있음.
- **투자포인트**
- 동사의 투자 포인트는 다음과 같음.
- 4분기 비수기 불구, 견조한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보여, 2010년 연간 매출액 1,525억원 (YoY+13.4%), 영업이익 121억원(YoY+0.2%), 당기순이익 109억원(YoY+16.4%) 등 전망돼, 최대실적이 이어진다는 점,
- 지난해 10월, 삼성전자로부터 KEY - PBA부품이 갤럭시패드 부품으로 승인되며 매출이 가시화돼, 올해 본격적인 매출이 발생한다는 점,
- 자회사 베트남 해외공장(지분 97.4%)이 2010년 매출 정상화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이 가시화되며, 올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236%, 234% 급증하여, 지분법 평가이익(43억원 예상)이 반영된다 점, 4) 삼성전자의 갤럭시탭 후속 모델 출시를 앞두고 신규 추가 매출 모멘텀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 등임.
- 따라서, 올해에도 사상최대치 실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2011년 예상 EPS 기준 PER이 5.6배에 불과해, 동종 대표업체 8.1배, 코스닥 시장 12.3배 대비 저평가 됐다고 판단됨.

기업코멘트

한진해운(117930) : 4Q Review : 잔 파도는 내려가고 큰 파도는 올라온다

[원문보기](#)

강성진 3770-3592 hiool@myasset.com

투자의견 Buy(M) / 목표주가 60,000원(M) / EPS 3,459원

- **업황둔화와 비용증가가 반영된 실적 ? 벌크시황이 나났고 비용증가요인도 가세**
- 2010년 4Q 한진해운의 매출액은 2.4조원(YoY +25.8%, QoQ -14.7%), 영업이익은 864억원(YoY 흑자전환, QoQ -76.7%)을 기록했다. 매출액은 당사의 기존 전망치에 부합했지만 영업이익은 기존 전망치 대비 28%나 저조했다. 부문별로는 컨테이너 부문이 1,035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한 반면, 벌크부문은 171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 한진해운의 4Q 실적이 기대보다 부진했던 것은, 1) 탱커와 드라이벌크 시장의 시황이 부진을 면치 못했기 때문이다. 벌크부문의 운임이 추가하락(3Q 21.4\$/톤(4Q 21.2\$/톤)함에 따라 벌크매출이 예상보다 156억원, QoQ 136억원 적었다. 2) 일시적 비용증가도 실적 악화의 원인이 되었다. 비수기에 따른 화물 수송량 감소로 연료유류비 및 물류비 등 주요 변동비는 축소되었지만, 용선료와 인건비에서 일시적인 증가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 **비수기 실적 둔화는 이미 예견된 것 ? 우호적 영업환경과 개선되는 현금흐름에 주목**
- 2011년 1Q에도 실적둔화는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이다. 1Q 영업이익은 560억원(YoY +2184%, QoQ -35.2%)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운임은 추가적으로 소폭 하락할 것으로 보이지만 4Q대비 하락속도는 크게 둔화되고 있다. 2011년 상반기에는 선진국 경기회복과 컨테이너 화물 비수기 종료 영향으로 물동량이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편, 현재 전세계에 계선중인(영업에 투입되지 않고 있는) 컨테이너선박이 전체 컨테이너 선박의 2.5% 수준에 머물고 있어, 물동량 증가시 추가로 투입할 수 있는 선복량도 많지 않은 상황이다.
- **투자의견 BUY와 목표주가 60,000원 유지 ? 현금흐름 개선에 따른 주가 레벨업단계 진입**

기업코멘트

현대모비스(012330) : 2010년 4Q Review

[원문보기](#)

안상준 (02)3770-3578 sangjun.ahn@myasset.com

투자의견 Buy(M) / 목표주가 320,000원(M) / EPS 24,895원

- **4Q 실적 Review:** 모듈사업부문 영업이익이 AS부품 영업이익 추월
- 동사의 2010년 4분기 잠정 실적은 매출액 3.65조원(YoY +14.8%, QoQ 11.4%), 영업이익 4,830억원(YoY +37.9%, QoQ +10.5%), 세전이익 7,400억원(YoY +24.8%, QoQ -2.0%)을 기록.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당사 전망치와 컨센서스에 부합했지만, 세전이익은 컨센서스를 15% 정도 하회.
-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양호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세전이익이 전망치를 하회한 이유는 1) 지분법이익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현대차 순이익이 예상치를 하회했고, 2) 해외 자회사의 실적이 환율 하락 및 재고 조정으로 인한 미실현 이익 증가 영향으로 악화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
- **4분기 실적 포인트는**
 - 완성차 생산 증가 및 핵심부품사업의 성장에 힘입어 모듈사업부문의 영업이익(2,610억원)이 AS부품 사업부문의 영업이익(2,220억원)을 추월해 완성차 생산모멘텀과 고부가가치 부품의 비중확대 추세가 이어지고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고,
 - 해외 자회사들의 합산 매출액이 33.7억원(3.8조원)을 기록, 본사 매출액을 사상 처음으로 넘어서 향후 해외 자회사의 실적 기여가 기대됨.
 - 2011년 1분기 전망: 양호한 실적 지속 전망
 - 동사의 2011년 1분기 실적은 매출액 3.68조원(YoY +13.1%), 영업이익 4,680원(YoY +15.2%), 순이익 6,370억원(YoY +17.7%)이 각각 예상되어 양호한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됨.
 - 전분기대비 매출액 증가가 예상되지만 원화 강세로 인한 AS부품사업의 수익성 악화가 예상되어 영업이익은 전분기보다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 2011년 동사의 연간 실적은 매출액 14.9조원(+8.6%), 영업이익 1.92조원(+6.7%), 순이익 2.67조원(+10.0%)으로 각각 예상되어 실적 개선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 **투자의견 Buy, TP 32만원 유지**
 - 지속적인 실적 개선과 이익 신뢰도가 높은 점을 감안해 투자의견 Buy와 TP 32만원을 유지한다. 현 주가 기준 2011년 예상 P/E는 10.8배로 밸류에이션 부담도 크지 않다는 판단.

기업코멘트

현대제철(004020) : Earnings Level-Up 본격 시동 !!!

[원문보기](#)

박기현 3770-3532 khpoker@myasset.com

투자의견 Buy(M) / 목표주가 170,000원(U) / EPS 11,887원

- **FY4Q10 Review : 'Earnings Surprise!!!' - 시황 악화 불구, 3천억원대 재진입**
- 시장 예상보다 강한 수익구조를 지녔음을 다시 한번 각인시킨 성적표를 제시. 영업이익 3,523억 원(yoy+87%, qoq+71%)을 기록, Consensus 3,017억원 보다 17% 상회한 성과. 매출구성상 가장 회복세가 더딘 건설경기에 집중되어 있는 불리한 구조인데도 불구, 好실적을 과시한 점을 높이 평가.
- OPM은 12.3%를 기록. ① 우려와는 달리 봉형강류의 마진 확보 영향. 원가절감 노력과 함께 3Q에 비해 철근내수ASP가 3.6만원 상승하는 등 Roll - Margin이 개선. 3Q에 비해 봉형강류의 OPM은 5~6% 상승한 것으로 추정 ② 고로재의 경우 보수공사를 완료한 B지구 HR품목의 가동률 증가와 생산량 확대에 힘입어, 추가적인 이익 확대. 고로재에서만 전분기대비 약 550억원 가량의 이익이 추가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추산
- **2011년 연간 영업이익 증가율 53%에 달할 듯. 1Q는 전분기와 비슷한 수준 전망**
- 고로재 마켓에 성공리에 진입하면서 본격 성장세에도 진입한 현대제철은 2011년에도 2차 성장 추진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것으로 기대. 고로 1기 가동 후 첫 개월부터 유례없는 영업 BEP를 돌파하면서, 이미 고로 이익확보를 위한 기본 수익구조 체질은 갖추었다는 점에서 2기를 가동하기 시작한 올해의 기대감은 당연한 수준
- 2011년 연간 영업이익은 1.58조원, yoy+53% 급증 예상. 순이익은 1.2조원(yoy+19%)에 이를 것으로 추정. 영업이익 증가율에 비해 순이익 증가율은 떨어질 개연성이 높다는 판단. ① 고로 2기가 가동되면서, 이자비용이 약 2천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외환관련 이익이 지난해에 비해 축소될 것으로 보이는 점, 여기에 투자세액공제가 줄어들면서 세율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 **BUY Rating. TP는 15% 상향 : 봉형강류 출하량 증대 기대 등 추가 Momentum 상존**
- ① 철근, 출하량 개선에 따른 이익반영도 개선 기대 ② 고로 2기의 가동률 제고에 힘입어, 고로재 이익 기여도 상승 등 Momentum은 여전히 건재. 고로재의 이익기여도는 올해 50%대까지 높아지는 등 고로재의 이익 계상이 본격적으로 진행. 글로벌 Peer Group의 평균 톤당 EV(고로 3기 50% 반영)를 적용할 경우, 17만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TP 17만원에 대해 부담을 가질 이유는 없다는 판단. 물론, 고로 3기의 착공이 진행되면서, 일시적인 순차입금(6.7조원 → 7.5조원 추정) 증가가 예상되나, 무수익자산 매각 등을 검토할 개연성도 높다는 판단

기업코멘트

현대차(005380) : 2010년 4Q Review

[원문보기](#)

안상준 (02)3770-3578 sangjun.ahn@myasset.com

투자의견 Buy(M) / 목표주가 250,000원(M) / EPS 23,218원

- **4분기 Review: 전반적으로 양호한 실적 달성**
- 동사의 4분기 잠정 실적은 매출액 9.9조원(YoY +3.1%, QoQ +12.4%), 영업이익 0.9조원(YoY +8.6%, QoQ +20.9%), 세전이익 1.6조원(YoY +32.5%, QoQ -1.9%)을 각각 기록.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당사 전망치와 컨센서스를 소폭 상회했지만 세전이익은 전분기대비 지분법이익 악화, 유형자산처분손실 등의 영향으로 컨센서스를 9% 하회함. 4분기 실적포인트는 1) 비정규직파업으로 인한 생산 차질과 환율하락(원/달러 기준 4.5% 하락)에도 불구하고 판매보증충당금전입액을 매출액대비 2.9% 계상한 보수적 비용처리 정책 등의 부정적 영향이 있었으나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사상최대치를 기록했고, 2) 이자이익, 수수료수입 개선 및 생산법인의 양호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전분기대비 1,400억원 정도 감소한 지분법이익의 영향으로 영업외손익이 전분기 대비 악화되었으며, 3) 지분법 이익 악화의 원인이 러시아 법인의 초기 손실, 해외 판매 법인의 마케팅비용 분담 증가(해외시장개척비 환입을 통해 판단)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경제적 실체 관점에서 문제시 될 만한 사항은 없었다는 판단임.
- **2011년 1분기 전망: 신차효과, 베르나 생산 정상화, 업황 호조 등으로 양호할 전망**
- 2011년 1분기 실적은 매출액 9.5조원(YoY +12.9%), 영업이익 8,450억원 (YoY +20.2%), 세전이익 1.63조원(YoY +21.4%)으로 각각 전망되어 설 연휴 등 짧은 영업일수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함. 이는 1) 그랜저HG 등 신차 판매 효과가 기대되고, 2) 비정규직 파업 종료로 인한 베르나 생산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수출 증가가 기대되며, 3) 여전히 낮은 재고와 글로벌 자동차 업황 상승 추세가 지속되고 있어 1분기부터 글로벌 전 공장이 완전 가동체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기 때문임.
- **2011년 가이드언스에 숨겨진 진실**
- 동사는 2011년 가이드언스로 시장의 기대치에 못미치는 390만대(+8%)를 판매(출하기준) 목표치로 제시. 이는 기아차의 조지아 공장과 슬로바키아 공장에서 생산되는 쏘렌토 및 EL등이 제외된 수치로 이를 감안하면 동사의 2011년 판매량은 405만대로 추정되어 실제로는 회사측 계획보다 더 많은 차량이 판매될 것으로 추정됨. 투자의견 'Buy'와 목표주가 25만원을 유지.

Global Market

MyAsset Guide (2011.01.31)

[원문보기](#)

김후정 3770 - 3492 hujung@myasset.com

- **인플레이션을 즐겨라**
- 물가상승 초기~중기 국면에는 경기확장과 맞물리면서 주가상승. 반면 물가상승 중기국면을 넘어 서면서 증시 움직임 둔화되는 모습 발견
- 물가 상승 초기국면에 진입한 유로존과 미국 등 선진국 증시가 신흥국 증시보다 우월한 흐름 보일 것
- 신흥국 가운데에는 물가상승 초기국면이라 할 수 있는 러시아 주목해야 할 것
- 원자재의 경우에는 주가보다 후행하는 농산물에 주목해야 할 것
- **X - File : Inflation**
- 인플레이션을 즐겨라
- 한국: 인플레, 디플레 모두 비켜라!
- 재미있는 인플레이션 이야기
- Inflation 수혜상품 원자재 펀드에 투자하자
- 인플레이션에 대처하는 기관투자자의 자세
- 인플레이션 투자전용 DLS 있다? 없다?

Global Market

글로벌펀드 : 한국펀드, 나홀로 선전 중 : 국내펀드 : 금리인상 영향으로 단기자금시장 변동성 확대

[원문보기](#)

백지애 3770-3567 jiae@myasset.com

- **국내펀드 : 단기자금(MMF) 주간 10조원 이상 순유출**
- KOSPI가 2,100pt를 넘어서면서 투자자들의 차익실현으로 국내주식형펀드(ETF제외)는 전주대비 유출규모가 크게 확대되면서 주간 기준 6,153억원의 순유출을 기록
- 해외주식형펀드는 1,753억원의 순유출을 기록하며 전주대비 해지규모가 감소됨
- 금리인상 영향으로 단기자금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MMF는 주간 10조원 이상의 자금이 빠져나갔으며, 연초 이후 누적기준으로도 순유출로 전환되었음
- **글로벌 펀드자금 : 신흥지역 4주만에 순유출 전환**
-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지역은 저금리 정책 유지와 작년 4분기 이후 진행되고 있는 경기회복이 부각되며 주간 57.7억달러 순유입. 특히 미국펀드(ETF 제외)로 17.5억달러 유입되며 3주 연속 견고한 자금 유입세 지속
- 신흥지역 펀드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GEM 및 아시아(일본제외)펀드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신흥지역은 4주만에 순유출로 전환. 그러나 GEM펀드의 순유출 전환은 특정 펀드(블랙록자산운용의 ETF)에서 23.5억달러가 빠져나간 결과이므로 추세전환으로 단정하기에 아직 이르다고 판단됨

Equity Market

[2월 주식시장 전망] : 2월의 투자 키워드는 인플레이와 계절효과

[원문보기](#)

이재만 3770-3598 aluckydream@myasset.com

- **Q1. 인플레이션 리스크 왜 신흥국에서 부각되고 있나?**
 - 글로벌 유동성 확대와 이상기후 현상 등이 겹치면서 국제 곡물과 원유가격 상승. 국제상품가격 변화가 신흥국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신흥국 소비자물가지수에서 식품과 에너지 비중이 크기 때문. 또한 중국의 높은 물가수준도 수입 가격 상승을 통해 신흥아시아 지역 물가상승으로 연결
- **Q2. 국내 인플레이션 리스크 수준과 증시에 미치는 영향?**
 - 최근 국내 기대인플레이션 상승하고 있고, 한국은행의 2011년 상반기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 3.7%로 제시. 과거 KOSPI와 물가상승률을 비교 시 물가상승률이 가속화될수록 KOSPI 수익률 둔화. 글로벌 전반적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 증시에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
- **Q3. 국내 증시에 숨어있는 계절효과는?**
 - 2월 KOSPI 상승률과 상승확률을 보면 뚜렷한 계절효과가 나타나지 않음. 그러나 스타일과 업종별로는 뚜렷한 2월 효과 존재. 우선 2월에는 대형주가 아닌 중소형주가 강세. 또한 업종별로는 기계, 철강금속, 운수창고, 섬유 의복, 화학 업종이 강세. 대기업 투자계획 발표와 중국 효과가 2월 효과를 결정하는 변수
- **Q4. 2월 국내 증시 전망과 투자전략은?**
 - 2월 국내 증시는 선진국 경기회복과 신흥국 출구전략의 상충된 영향으로 변동성 높은 주가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 KOSPI밴드는 최저 2,000pt~최고 2,180pt로 전망. 투자전략 아이디어로는 대기업 투자확대의 수혜와 계절효과가 기대 되는 중소형주. 인플레이 리스크와 계절효과를 고려한 기계, 철강금속, 운수창고, 화학, 운송장비 업종에 관심 필요

Derivatives Market

KOSPI200지수 특별변경 발생 : 전기초자 Out, 영진약품 In

[원문보기](#)

이중호 3770-3482 leejh@myasset.com

- 영진약품의 유동비율 반영 시가총액이 적어 시장 영향은 미미할 것
- KOSPI200지수 특별변경 사유 발생 - 전기초자 제외, 영진약품 편입(영진약품 유동시가총액 비중 195위로 K200 현물 바스켓 구성에 거의 활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시장 영향 미미할 전망)
- 최근 현물시장에 대한 매수세력의 등장 여부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는 상황(장기적으로 주식을 매매하는 외국인 및 투신 매도세 지속), 파생시장 역시 현물 매수 여력을 공급해 줄 시장 Basis 개선 여부에 주목할 시점
- 지수의 고점 저점 등 변곡점에서는 옵션의 불베어지수가 큰 등락을 보여 왔지만, 현재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 특징임

Economic Market

미국 4분기 성장 가속화, 이집트 시위로 투심 위축

[원문보기](#)

김지현 3770-3572 smilekim@myasset.com

- 이집트발(發) 중동지역 불확실성 확대
- 미국 4분기 성장 가속화 (3Q 2.6% → 4Q 3.2%)
- 미국 4분기 성장률 예상치 하회했으나, 이는 채고투자 부진 영향
- 세부내용은 긍정적: 소비, 고정투자, 순수출은 민간 부문의 자생적 회복 시사
- 그 동안 성장 주도한 채고투자과 정부지출의 (-) 기여도에도 불구하고, 3%대의 높은 성장
- 2011년 미국 경제성장 가속화 전망 (2010년 2.9% → 2011년 3.4%)
- 물가상승 압력 아직 크지 않아 금리인상은 2012년 이후 전망
- Fed가 선호하는 인플레이 지표인 PCE 근원물가지수 3Q 0.5% → 4Q 0.4%
- 튀니지'재스민 혁명'의 중동지역 전염(contagion) 우려
- 튀니지와 이집트 민중시위 원인: 독재정권, 부정부패, 청년실업 등
- 이집트 민중시위의 전개: 이집트 정부의 강경진압과 미국의 구두 개입
- 글로벌 금융시장: 장기적 상승 추세 유효, 단기적으로 조정 압력
- 튀니지와 이집트에 이어 다른 중동 및 북아프리카 독재정권 국가들로 대규모 민중시위 확산 우려
- 이 지역 경제성장 둔화와 원유생산 차질에 대한 우려로 미국중시 급락, 유가급등
- 2011년 미국 경제성장 가속화와 저금리 지속으로 장기 상승 추세 유효, 단기적으로 조정 압력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타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함. 작성자 중앙종합금융증권 리서치센터. 당사는 자료공표일 현재 동 종목 발행주식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자료공표일 현재 해당 기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를 전문투자자 및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공표일 현재 동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종목 투자등급 Guide Line : 투자기간 6~12개월, 절대수익률 기준 투자등급 3단계(Buy, Hold, Sell)와 위험도 2단계(H : High, L : Low)로 구분 Buy : 10%이상(Low)/20%이상(High), Hold : -10~-10%(Low)/-20%~-20%(High), Sell : -10%이상(Low)/-20%이상(High). 업종 투자등급 Guide Line : 투자기간 6~12개월, 시가총액 대비 업종 비중 기준의 투자등급 3단계(Overweight, Neutral, Underweight)로 구분. 2008년 2월19일부터 당사 투자등급이 기존 5단계(Strong Buy, Buy, Market Perform, Under Perform, Sell)에서 3단계(Buy, Hold, Sell)와 리스크 2단계(High, Low)로 변경. 본 자료는 투자자의 투자를 권유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자료입니다. 본 자료는 금융투자분석사가 신뢰할만 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와 정보에 의거하여 만들어진 것이지만, 당사와 금융투자분석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 자료를 참고한 투자자의 투자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자료는 당사 투자자에게만 제공되는 자료로 당사의 동의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전송 인용 배포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